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Physical Identities of Bukchon Hanok Area Viewed from Literary Geography

박철수*
Park, Cheol-Soo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beneficial methodology to increase cultural values of urban style Hanok,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Based on the literary geographical approach, this study defines the physical identities of special Bukchon Hanok area in Seoul. The explored physical identities are to provide basic fundamentals for supplying and maintaining new Hanok buildings, including how to preserve and restore the traditional Hanok areas. They are also to develop various Hanok related cultural products and to encourage Hanok popular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add more the humane values and significances to the previous relevant researches. With these perspectives and through above mentioned methodology, the study draws the physical identities of Bukchon Hanok area and meanings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he collective identity. Bukchon Hanok area is mainly composed of organic spaces with its collective scenery. Narrow alleys and curved lanes created by collective gaps between Hanok buildings, provide residents and visitors with abundant choices of moving path. The second one is the formal identity. Bukchon Hanok maintain their unique layout patterns. The basic units of Chae are combined in specific ways such as 'ㄱ', 'ㄷ', 'ㄹ' types and result typical formal expression of the area. The third one is grounding identity which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 and everyday living space. Each Chae of house always surround Madang, Korean traditional court yard with rare vegetation. And the connection to the ground is transferred to the memories of its dwellers. Lastly, the current Hanok still preserve similar characteristics of past time Hanok such as materials, structure and styles by using unique building technics and exposing traditional ornamenting styles.

Keywords : Seoul, Bukchon, Hanok, Identity, Literary Geography

주요어 : 서울, 북촌, 도시한옥, 정체성, 문학지리학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학과 지리가 각각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 접속하면서 새로운 인문학의 대안적 담론을 모색하는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은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¹⁾ 유형학과 형태학의 결합을 통해 도시조직과 공간을 연구하는 형태유형학처럼 문학지리학적 방법론은 공간적 인식을 담당하는 지리학과 인문학적 범주에 포함되는 문학 사이를 잇는 새로운 융합적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모색이지만 여전히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따라서 문학지리학은 '어떤 특정 장소-세계가 문학상상력에 어떻게 상상의 삶과 피를 만들고, 미학적 불어넣는가를 따지고 캐는 것³⁾이지만, 이를 다시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의 산학연 협력사업 중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한옥 미래자산 포트폴리오"의 1단계 2차년도(2007~2008)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문학작품들의 표기방법 가운데 < >는 소설집, 수필집 등의 단행본에 실린 개별 문학작품을, []로 묶은 것은 소설집이나 수필집의 제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기간행물은 『 』속에 넣어 표기하였다.

1) 문학지리학이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견해는 '김태준(2006), 한국의 여행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언급한 내용으로서, 오늘날의 문학지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오래 전에 발행된 '東國輿地勝覽'이나 '東文選', '八道地理志' 등과 더불어 각종 민담집이나 민속지 등을 문학지리서로 꼽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인문학의 새로운 모색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학지리학과 관련하여 출간된 본격적인 문헌으로는 '김재관·장두식(2007.1), 문학속의 서울, 생각의 나무',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2005.11),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걸던 길까지, 창비', '김훈·박래부(2007.12), 김훈·박래부의 문학기행, 따뜻한손', '장석주(2006.11),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장석주(2007.12),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주)사회평론', '김정동(2005.3), 문학 속 우리도시 기행, 옛오늘'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에서 최근 발간된 '河村吉宏·中村 勝·三浦隆夫(2007.4), 京都文學散策, 京都新聞出版センタ-'나 뉴욕 맨해튼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곳곳을 공간적, 지리적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동한 지도를 결합하고, 작가의 작품노트 등을 해설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하여 운영중인 'A Literary Map of Manhattan'이라는 웹 사이트도 이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명료하게 정의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공간에 집착하면서 그것의 보편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문학과 지리학을 결합하여 주목하는 새로운 학문적 태도이자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같은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서울 북촌의 가회동 일대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다양한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물리적인 차원으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고유한 물리적 특질이 무엇인가를 살펴 이를 물리적 정체성(physical identity)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⁴⁾

이같은 태도는 옛 것에 대한 동경이나 향수 혹은 한국성의 재현 등과 같은 한국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나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빚어내는 경관적 아름다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집합적 생활문화재로 복원하기 위한 연구나 실천 노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롯된 기왕의 연구성과⁵⁾에 다양한 문학작품 속의 묘사내용과 지리적 장소를 엮고 의미를 보태어 도시조직과 공간 환경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보전이나 복원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한옥 가치창출과 대중적 전파와 보급, 문화적 의미의 고양 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한옥건축의 산업화나 기존 한옥밀집지역의 유지관리와 복원 등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마련 등에 유용한 시선이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⁶⁾

2) 조동일(2005.6), 문학지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상상공간, 논형,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 20~21 쪽에서는 문학지리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통해 '문학지리학'은 '문학역사학'과 대칭되는 것으로서 문학역사학이 시간을 다루는 것이라면, 문학지리학은 공간적 인식을 전제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 등에 주목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3) 장석주(2007), 앞의 책, 21쪽

4) 서울 북촌 도시한옥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북촌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고유한 관습이나 언어, 생활문화 등을 연구하는 '구술채록에 의한 생애사 연구'나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변화를 기록 중심으로 분석하는 '도시사 연구', 거주공간으로서의 변모를 채집하여 그 변화의 현상과 동인 등을 탐색하는 '주거문화 연구', 도시조직과 건축형태가 빚어내는 경관이나 주택유형에 주목하는 '건축유형학적 연구' 등등으로 그 영역과 접근방법은 무수히 확대될 수 있다.

5) 이 논문에서는 '송인호(1990), 도시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부터 2000년 이후 서울특별시의 '북촌가꾸기 기본계획'과 '실측조사', '북촌사업반의 신설과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활동들', '김영수(2007) 기술·의장 중심의 역사경관 보전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에 이르는 북촌에 대한 일련의 사업들이나 연구성과를 모두 말한다.

6) 최근 정부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성북동 일대의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밀집 한옥으로 해당지역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계에서는 한옥건축 산업화 방안이 연구되었으며(2008.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건축법의 제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연구방법은 흔히 북촌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계동, 안국동, 화동, 삼청동, 소격동 일대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정하여 소설이나 수필 등의 문학작품에서 구체적인 서사의 장소나 배경적 공간으로 삼은 문학작품의 묘사내용을 분석하는 문학지리학적 방법을 따른다. 문학지리학의 영역을 지방문학과 여행문학으로 구분한다면⁷⁾ 이 논문은 서울에 머물러 살면서 이룬 문학적 성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단순하게 서울 혹은 북촌을 견문한 바를 다룬 문학작품들과 지리학을 연계한 여행문학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경험에 기초한 수필 등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즉, 서울에 살면서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환경에서 작가들이 이룬 문학적 성과 가운데 특히 북촌의 공간환경을 작품 속에 그리거나 묘사한 내용만을 추려 분석하는 방법을 택한다.⁸⁾

소설이나 수필 등 문학작품들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문학작품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리적 대상으로 삼은 서울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에서 나서 자라고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뒤 그곳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문학작품만을 선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문학지리학적 분석방법으로 북촌의 물리적 특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은 합리적인 반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거 전(前)산업시대와는 달리 한 고을에서 성장하여 그곳만의 풍부한 전통과 소중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작품에 온전하게 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수용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작품들을 통해 오늘날 서울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어떤 공간적 독자성으로 작가들의 시선에 포착되어 그려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하는 물리적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⁰⁾

그러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특질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축적되거나 변형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북촌 일대가 도시한옥으로 들어설 당시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촌의 도시한옥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1930년

7) 조동일, 앞의 논문, 22~26쪽

8) 북촌에 대한 지리적, 공간적 인식범위는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의 남측과 북측을 공간범위로 할 때와 율곡로의 이북지역을 적시하는 경우도 다르며, 구체적으로 몇 개의 행정동으로 국한하여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9개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인용문헌에서는 이러한 제한없이 청계천의 북측을 일컫는 경우도 함께 사용하였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일은 앞의 논문 22쪽에서 이러한 작업을 분류하여 문학지리학의 지방문학이라는 갈래 중 '고을문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강화 문학, 부안 문학, 남해 문학 등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10) 분석자료로 이용한 북촌과 관련한 작품들은 박범신의 [외등] (2001년 발표)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5~2008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대의 실제 상황을 그린 사실(facts)을 당시의 잡지와 문학 작품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당시 모습을 중심으로 북촌에 대한 대중들의 상황인식과 시선을 먼저 살핀 뒤 최근의 각종 문학작품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적 의미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드러내는 북촌의 경관적 특성, 도시조직과 주거건축의 상관성, 생활공간으로서의 북촌의 도시한옥이 갖는 기술의장적 특징 등을 물리적 정체성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¹¹⁾

II. 도시한옥 밀집지역 북촌의 형성과 시선

마치 한국적 주거유형의 원형 혹은 고유한 전통주택지로서의 한옥으로 언급되곤 하는 북촌이 현재와 같이 도시한옥 밀집지역으로 대거 바뀌던 당시의 각종 사실 기록을 보면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작 집장수 집이거나 텅없이 비싼 집이거나 혹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 호경기 속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선양절충(鮮洋折衷)의 화려한 주택지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졸부들의 사치품이거나 투자대상에 불과했다. 다음에 차례대로 서술한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양상이 이를 잘 드러낸다.

첫째는 현재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물길을 생활공간으로 형성된 계곡의 자생적인 집락지(集落地)로 존재하였을 뿐, 근대적 계획수법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 최초의 비행사라는 칭호를 받은 바 있는 안창남이 서울 상공을 선회한 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즉,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의 종로와 을지로 일대는 조선기와집이 즐비하였고, 청계천 남측의 일본인 밀집 주거지역은 퇴계로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초가집이 군락을 이루었던 구릉지형 주택지역에 불과했던 것이다.

둘째, 초가집에 불과하던 북촌 일대는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선양절충의 화려한 신주택지로 변모하였고, 신분 사회의 제약이 신주택지 조성 등으로 인해 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민에 의한 투기의 대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묘사는 적어도 1930년대 중반에 이미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개발이 최고조에 달

했고, 신흥중간층에 의한 이 일대의 점유가 활발하였다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언급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과거의 신분질서 속에서의 북촌은 적어도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정되었던 주거공간이었으나 1930년대 이후 이같은 인식은 와해되었고, 새로운 지배질서의 출현으로 인해 북촌이 점령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셋째, 북촌 도시한옥 일대는 1935년경에 집중적 건설로 이루어진 도시한옥 밀집지역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조직에 대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 일대의 주거지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주거건축 역시 대량공급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⁴⁾ 과거와 달리 구릉지 일대의 개간을 통해 도시한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토지가의 폭등이 야기되었고, 주택가격 또한 전례없이 양등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새롭게 조성된 북촌 일대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주택가격은 관철동이나 다동(다방골) 등 기존의 도심지 주택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며, 적어도 선양절충으로 이루어진 도시한옥이 일부 계층에게는 선호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¹⁵⁾ 이는 당시 도심주택에 비해 새롭게 조성된 북촌 도시한옥이 규모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변화된 생활을 수용하기에 보다 용이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재화를 통해 지배계급을 형성하던 계층들의 관행적 주거와는 일정한 차이를 가진 집단주택지로 북촌 일대가 회자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촌 일대의 집합적 주거지 개발은 단순히

11) 논문 구성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일종의 설명적 기사나 논설조의 글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다. 기행문 혹은 회고담이거나 마치 신문 기사와도 같은 유형의 사실 전달을 위한 논설과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12) 안창남, <하늘에서 본 경성과 인천>, 『개벽』, 1923년 1월호에는 “여기서 내려다보기에는 남촌에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진고개 길 좌우 옆뿐인 것 같아 보였고, 경성 전체의 형용은 얼른 보기에 종로통과 황금정통의 시커먼 기와집이 있는 일대가 큰 판으로 뚫어 놓은 듯 하였습니다. 결의 남북촌으로 쪽쪽 뚫은 가옥의 줄기는 마치 무슨 큰 거미에 발이 달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고 창외문 쪽의 거리를 보면 무슨 짐승의 꼬리같이도 보였습니다.”라는 기고문이 실려 있다.

13) 유광열, <대경성의 점경>, 『사해공론』, 1935년 10월호에 기술된 내용은 “이전에 경성의 부호가 많이 살기로 유명하던 다방골도 지금은 셋집의 도회처가 되고 기생촌이 되었다. 북촌에 계곡지같이 낮은 초가집! 주룩주룩 비가 새던 계동, 가회동 일대는 최근 30년래로 시골의 지주나 상인이 와서 옛집을 헐어제치고 선양절충(鮮洋折衷)의 화려한 신주택을 지어 면목을 일신하였다. 어느 동 대감이니 어느 동 판서대이니 하던 것이 서울 사람의 화제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는 시골 지주의 아들이나 일확천금의 부자들이 올라와서 서울의 패권을 쥐었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14) 정세권(1935.11), 폭등하는 토지, 건물시세, 『삼천리』, 1935년 11월호, 40쪽에 실린 글을 보면, “금년(1935년-연구자 주) 봄 이래로 서울의 북촌 산 밑 일대는 어느 한 곳 빈틈이라고는 없이 모조리 산을 파내고 헐어 내려서 집을 자꾸 짓는 형편으로 대략만 치더라도 4천여 호가 새로이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15) 본격적인 도시소설이자 근대문학으로 불리는 박태원(1936)의 <천변풍경>에는 “어느 날 관철동 집은 난데없는 문제를 꺼내어 민 주사를 놀래 주었던 것이다. 그는 현재의 관철동 주택의, 대체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그 집을 팔아 버리고 계동 쪽대기 집장수 집에, 아주 마땅한 것이 있다고,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주장을 하여 마지않았다. 이사도 좋았지만, 계집이 말하는 방 하나와 광 한 칸이 더한 그 집을 사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이 집을 매 간에 꼭 삼백 원씩 받고 팔 수 있다 하더라도, 돈 천 원이나 또 보태야 하였고, 그 천 원이라는 돈이 사오 년 전이면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민 주사는 한참을 눈살을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구릉지를 평탄한 주택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교통수단이 개발의 가속도를 더해준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 로터리까지의 전차가 부설되면서 1920년대까지 서울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종로의 거점이 북촌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⁶⁾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920년대까지 북촌 일대는 종로를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밀집주거지역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의 병참기지로 한반도가 위치하면서 전쟁경기(군수품경기)를 기제로 한 호경기가 전차 부설계획과 함께 현재 북촌의 모습을 태동시켰고, 1933년과 1934년에 걸쳐 4,000호 이상의 주택이 구릉지 개발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섬으로써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조성된 것이다.¹⁷⁾ 1937년에 발표된 이태준의 소설 <북덕방> 역시 이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¹⁸⁾

결국 북촌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은 게딱지같은 초가집이 급작스럽게 바뀐 곳으로서 제대로 된 구축방법이나 격식을 갖추지 못한 선양절충의 화려한 신주택이 집장수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지어진 것에 불과하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살았던 주택과는 달리 시골의 지주나 근대사회의 신흥세력인 상인들이 구입하는 집이라는 것인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첩실이 사달라고 조르거나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한탄조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에서는 이와 달리 북촌의 모습을 계획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으로 그리고 있으며, 조선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지역의 집

단적 주거지가 결국은 일제에 의한 도시정비의 방법으로 조성되었으며, 식산은행 직원들을 위한 전차부설 등으로 인해 조선인 밀집지역의 주거지역 역시 변화한 곳으로 변모될 수 있었다는 지배자의 시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경성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모든 구릉이 주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집은 모두 남향으로 즐지어 있다. 최근 시가지에서는 조선 특유의 아름다운 지붕선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볼 수 있는 높은 바위산의 경사면에 계단을 만들어, 나란히 세운 기와지붕과 흰 벽의 집이 대륙적인 따가운 태양빛을 받아서 비늘처럼 반짝이는 풍경은 역시 특별한 맛이 있다”¹⁹⁾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북촌이 형성되던 당시에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곳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인들의 시선은 이와 달리 이국적 풍경이자 계획적인 근대도시의 발현지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대인 1936년에 발표되었던 이태준의 소설 <장마>에 매우 안타까운 시선으로 언급된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국동서 전차로 갈아탔다. 안국정이지만 안국동이라야 말이 되는 것 같다. 이 동(洞)이나 이(里)를 깡그리 정화시킨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평을 품는다. 그렇게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릇된 나치스의 수입이다. 더구나 우리 성북동을 성북정이라 불러보면 ‘이주사’로 불러야 할 어른을 ‘리상’이라고 남실거리는 격이다. 이러다가는 몇 해 후에는 이가니 김가니 박가니 정가니 무슨 가나가 모두 어수선스럽다고 시민의 성명까지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통제할런지도 모른다.”²⁰⁾고 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대중잡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와 입장으로 동일한 대상을 기술한 것이다.

III. 문학지리학적 입장에서 본 북촌의 물리적 정체성

1930년대 이후 구릉지의 집중적 개발에 의한 택지확보를 통해 고밀도 도시한옥 밀집주거지로 조성된 북촌은 최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조성 당시의 부정적

16) 조이담(2005.11),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도서출판 바람구두, 47쪽에는 당시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1923년 2월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 별궁 앞(안국동 광장)까지 전차 부설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노선은 사실 안동별궁 바로 옆에 지어진 식산은행 관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된 것이다. 이 전차노선이 생겨나면서 견지동, 인사동은 물론 삼청동, 가회동 등 전차정류소와 인접한 북촌 일대의 근대적 도시형 한옥의 개발분이 크게 촉진되기에 이른다. 식민지 지배권력의 편의주의적인 도시개발 탓에 경성은 왜곡되고 제한된 형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근대적 도시화는 급기야 남촌 일대나 종로 등지의 상업가로에서 북촌과 같은 조선 상류층 주거지에 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전차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그것이다.

17) 송인호의 앞 논문은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서울의 도심부 및 도심주변부에 집단적으로 분포되는 일련의 중소규모의 한옥군을 도시형한옥으로 정의하고 있다.(송인호, 앞의 논문 19~21쪽) 그동안 개량한옥으로 불리던 이 일대의 한옥군에 대한 호칭은 기본적으로 그 포착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옥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리적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도시(형)한옥’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18) 이태준(2002), <북덕방>, [현대문학 100년, 단편소설 베스트 20], 가람기획, 93쪽에는 “대정(大正) 8, 9년 이후로는 시골부자들이 세금(税金)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貫鐵洞), 다옥정(茶屋町)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 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3, 4백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嘉會洞)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倉洞)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19) 윤소영 외 3인(2007),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어문학사, 48쪽. 이 책은 일본의 文藝春秋社(제3권 1호부터는 모ダン日本社가 발행)가 근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모더니즘을 소개하고자 1930년 10월 일본에서 창간한 월간잡지 『モダン日本』 1939년 11월호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 잡지는 1942년 11월까지 통권 13권 12호가 발행되었는데 1939년 11월호와 1940년 8월호 두 차례에 걸쳐 ‘조선관’이라는 임시증간호를 발행하였다. 소위 ‘조선특별호’라 할 수 있는 두 권은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기생과 금강산 뿐’이라는 일본인의 조선관을 비판하기 위해 마해송(1905~1966)이라는 조선지식인에 의해 기획되고 출간되었다. 그러나 그는 1930~40년 사이에 모던일본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기획의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각별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특별호’의 첫 번째인 1939년 11월호에는 모두 27쪽에 해당하는 화보가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조선의 집들’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인용한 묘사가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20) 이태준(1988), <장마>, [이태준 문학전집-2], 서음출판사, 62쪽

인 인식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²¹⁾ 따라서 제3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긍정적 시선이나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이 최근의 문학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약 40여 편의 문학작품을 통해 볼 때 4가지의 물리적 정체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도시한옥군이 빚어내는 집단경관과 골목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소설과 수필 등에 나타난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묘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언급되는 북촌의 물리적 속성에 관한 묘사는 크고 작은 규모의 도시한옥이 빚어내는 집단적 경관의 아름다움과 각각의 주거블록 사이를 잇는 골목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옥처마를 따라 여러 번 굽이치는 골목길과 고택담장을 따라 놓인 별궁길’²²⁾을 묘사하고 있다거나 ‘추녀를 나란히 한 고만고만한 조선기와집’²³⁾을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밀조밀한 한옥집’²⁴⁾이라거나 ‘길을 면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한옥’²⁵⁾ 등과 같은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묘사는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²⁶⁾ 요약하여 언급하자면,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특징 가운데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의 물리적 정체성은 오밀조밀한 도시한옥군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경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며, 그 군락을 엮어내는 기본적인 공간요소로 굽어있거나 여러 갈래를 가지고 동리를 이리저리 휘도는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언급은 적어도 북촌 도시한옥이 밀집하여 개발되던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이며, 최근에 발표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을 통해 작가가 특정한 공간인 북촌을 물리적 정체성의 하나로 포착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2. 채의 나눔과 각 채의 구성형식

문학작품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특기할만한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은 도시한옥이 채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각 채는 일정한 구성형식으로 짜인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문간채가 만나 완성된 북촌의 도시한옥을 구성하지만²⁷⁾ 문학작품 속에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뒤채 등으로 주거공간이 나뉘어 불리면서 각각의 채가 일정한 결합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²⁸⁾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는 채의 결합방식은 그림-바탕이론(圖地理論, figure-ground theory)에 따라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과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로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⁹⁾

“내가 태어나서 십여 년간 자란 그 집의 그 우물, 그 안방과 마루, 건넌방과 사랑방, 그 꽃밭”³⁰⁾ 등으로 묘사하거나 “원남동은 실제 내가 자라난 동네다. 우리 집은 한길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와 뒤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한옥이었다.”³¹⁾는 등의 언급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함께 “대문에는 장락문(長樂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서면 행랑채와 행랑마당이 있고, 행랑의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가 있었다.”³²⁾거나 “중문을 지나자 아담한 정

21) 북촌가꾸기 추진반에 의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도시한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모하였다. 일례로 서울시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북한산과 인왕산 일대의 한옥재개발 구상이라든가 국토해양부로 바뀐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한옥의 대중적 보급방안, 각종 시민단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옥관련 건축법 제정 움직임, ‘한옥에 살어리랏다(2007, 돌베개), 한옥이 돌아왔다(2006, 공간사)’ 등으로 대표되는 한옥관련 도서의 출판과 보급, 서울시의 시민 홍보매체인 <하이 서울뉴스>나 각종 대중잡지들의 연이은 한옥특집 게재 등은 최근의 이러한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미래 도시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한옥 미래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연구사업을 2006년 착수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은 이 사업의 1~2차년도를 통해 축적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도 하다.

22) 김연수(2005.5),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농담>, [나는 유명 작가입니다], 창비, 23쪽에는 ‘기 낮은 한옥의 처마를 따라 여러 번 굽이치는 골목을 돌아 교육2길로 빠져 나가는 길, 또 거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금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세거리를 거쳐 다시 오른쪽으로 윤보선 고택담장을 따라 놓인 별궁길까지 내가 제대로 선을 그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23) 박완서(2007.10), <그 남자네 집>,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51~52쪽. “한길에서 그 집을 들여다보면 대문이 보이지 않고 고궁에서나 볼 수 있는 흥예문이 보였다. 흥예문은 사랑마당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안채로 통하는 대문은 흥예문이 달린 담장과 기억자로 꺾인 곳에 달려 있었다. 난 왠지 문지방이 들로 된 위압적인 솟을대문보다는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흥예문에 더 압도당하고 있었다. 추녀를 나란히 한 고만고만한 조선 기와집하고는 격이 달라 보였다.”

24) 송원희(2006.10), <내 박물관의 미니어처>, [서울을 품은 사람들 1], 문학의 집·서울, 131쪽에서는 도시한옥 밀집지역에 대해 “내가 살고 외가, 친가가 모두 적선동 체부동 당주동 통이동 필운동에 있었고 그곳에 오밀조밀한 한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집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묘사하고 있다.

25) 해이수(2006.6), <출악어기(出鰐魚記)>, [갱거루가 있는 사막], (주)문학동네, 135쪽. “밥 먹다 말고 택시를 잡아타고 간 곳은 버스로 세 정거장 거리의 동네였다. 길을 면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중 낡은 한옥 앞에서 엄마는 걸음을 멈췄다.”

26) 안혜초(2006.10), <40년만의 해후>, [서울을 품은 사람들], 위의 책, 34~35쪽에서는 ‘꽃밭과 골목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성림(2006.10), <골목이 그리운 미동초등학교 언저리>, 앞의 책, 87쪽에서는 ‘화려한 꽃을 피워 올리던 작은 집들이 연이어 있는 골목길’로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휘돌아내리는 좁은 골목길’(정명숙, <서울 반토박이>), ‘아기자기하게 이마를 맞대고 들어선 마을의 모습’(변해명, <광화문을 바라보며>), ‘골목을 따라 끝에 가면 나타나는 한옥’(김미월, <현기증>) 등과 같은 문학작품 속의 묘사가 발견된다.

27) 송인호, 앞 논문, 150~155쪽, 160쪽

28) 이는 우리의 전통주택에 대한 각별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화과정에서 잉태된 도시한옥과 달리 전통건축의 주거공간에서는 각 채가 서로 분리되거나 일부 결구되면서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性)이나 신분적 위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지만 신분질서가 와해된 근대 이후에도 각 채를 부르는 용례가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개념은 그림-바탕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거주용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공간은 적극적 공간, 이들 적극적 공간 사이를 이으며 동선의 경로로 활용되는 공간을 소극적 공간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이들 공간의 성격과 건축적 의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는 Matthew Frederick (2007), 101 Things I Learned in Architecture School, MIT Press, 2~6번 항목에 관한 내용설명과 도면 참조.

30) 안혜초(2006.10), 앞의 글, 34~35쪽

31) 이세기(2006.10), <벚꽃 날리던 구름다리길>, 위의 책, 237쪽

원이 보이고 다시 몇 채의 방이 보였고……광 하나를 끼고 돌아서자 연못이 있는 마당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랑채로 보이는 시원한 마루가 보였다”³³⁾는 등과 같은 묘사는 도시한옥으로 불리는 북촌의 도시주택이 대개는 안채, 사랑채, 뒤채 등의 채가 일정한 대지에 놓이고 이들 사이의 공간적 긴장감이 마당이나 꽃이 있는 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북촌의 전형적인 한옥으로 이미지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리적 특성은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북촌 도시한옥은 ‘안채와 대청 등이 만든 ㄷ자형(字形)³⁴⁾이라거나 ‘ㄷ자 집안³⁵⁾ 혹은 ‘니은(ㄴ)자 구조와 기역(ㄱ)자 구조가 맞물린 미음(ㅁ)자³⁶⁾라는 묘사가 발견되는가 하면 ‘담까지 합쳐 几(계)자 모양의 집안³⁷⁾이라고 한자어를 사용하여 형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북촌의 도시한옥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채가 개별적 단위공간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되면서 기역 자나 니은 자 혹은 거칠게 본다면 디귤 자와 미음 자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설파한 것이며, 도시조직과 한옥의 형태유형학적 결합방식을 포착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북촌의 중요한 물리적 정체성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과는 다른 요소가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특정한 것을 보편적인 진실로 일반화할 때 소용되는 방법이 문학지리학의 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을 위한 마당과 뜰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의 채를 이루는 살림공간과 상

호 조우하는 마당이나 뜰에 대한 특성 묘사이다. 흔히 접지성(接地性)으로 불리는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이 인위적인 건축공간과 자연적인 대지(大地)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이 인지됨으로써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뜰과 나무, 조붓한 마당, 사랑마당과 우물, 아담한 정원, 넓은 마당, 행랑마당 등으로 묘사되는 문학작품 속의 도시한옥은 비록 격식을 갖춘 문화재급 한옥과는 달리 작고 서로 담장을 맞대거나 이웃하고 있지만 아담하고 조붓한 마당을 중요한 물리적 공간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붓한 화단에 장미가 피어나던 집³⁸⁾을 기억하거나 ‘마당에 파초를 심어 빗소리를 듣던 집³⁹⁾을 찾아가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통해 기억과 체험에 기반한 작품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언급은 고층아파트 위주의 변모된 도회지 거주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도시한옥의 접지성을 한 층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시한옥의 마당이나 화단이 있는 뜰, 혹은 처마와 담장 등으로 윤곽을 이루는 채 사이의 여유공간에 마련된 우물과 빈터 등을 언급한 작품들은 여기에 직접 인용한 것 이외에도 다수 발견된다⁴⁰⁾는 점을 상기한다면 도시한옥의 매우 중요한 물리적 특질이나 북촌 도시한옥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곧 마당과 뜰에 의한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묘사의 대부분이 작가의 실제 거주 경험과 그로 인해 축적된 기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체험이 빚어낸 “공동체의 경험이 문학적 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⁴¹⁾ 문학지리학적 접근태도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기술·의장 요소와 공간적 깊이

북촌 도시한옥에 대한 문학작품의 기술 내용 가운데 네 번째에 속하는 특징적 묘사는 도시한옥 전체를 일별할 때 발견되는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다. 홍예문, 솟을대문, 대문, 중문 등 도시한옥의 공간이동 경로에 따라 맞

32) 이선미(2007.5), [경성애사], (주)학산문화사, 186쪽

33) 임영태(2007.12), [호생관 최북], 문이당, 88~90쪽

34) 박범신(2001.6), [외등], 도서출판 이름, 26쪽의 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가회동집, 그리고 목련. 어머니를 따라 가 살게 된 가회동집은 한옥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ㄷ자형(字形)이었다. 대문을 열면 좌우에 사랑방과 창고가 들여져 있었고, 곧 뜰로 이어졌다. 곱은자형의 안채에는 안방과 윗방이 있었으며, 대청을 사이에 두고 건넌방이 있었다. 뜰은 나무들이 울창했다.”

35) 전경린(2007.1), <천사는 여기 머문다>, [2007 제3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7~18쪽의 묘사는 “오며 가며 늘 궁금했는데 그날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 그 집의 대문에 눈을 대고 미음 자 집안을 들여다보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36) 박완서(2007.10), <그 남자네 집>, 앞의 책, 51~52쪽. “홍예문이 달린 사랑채는 니은(ㄴ)자 구조로 돼 있었다. 안채의 기역(ㄱ)자 구조와 맞물리면 미음(ㅁ)자가 되지만, 맞물리지 않고 넉넉한 공간을 두고 떼어놓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었다.”

37) 김진규(2007.12), <달을 먹다>, [달을 먹다], (주)문학동네, 165쪽에서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중문을 들어서면 왼쪽 가장자리부터 살림채가 시작된다. 담까지 합쳐 几(계)자 모양으로 집안이 늘어서 있는데. 맨 위쪽에 향이의 방이 있다. 방문 바로 아래로 한 자 반 정도 폭의 마루가 있고, 그 마루를 내려서면 돌을 깔 바닥이다.”라고 언급된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다.

38) 송은일(2006.6), <딸꾹질>, [딸꾹질], 문이당, 148쪽. “연우네 형제가 살던 집은 상상했던 것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혜화동에 있던 수많은 한옥들 중의 한 채였을 뿐이다. 뜰 한편의 담장 옆에 키 큰 은행나무가 팔 벌리고 서 있고 조붓한 화단에 장미가 피어나던 집”

39) 이정림(2006.10), <사직동 그 집>, [서울을 품은 사람들], 앞의 책, 142쪽에는 최근의 아파트가 가지지 못하는 접지성을 빗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에 사니 꽃담이 아름다운 한옥에서 사랑채에는 서재를 만들고 마당에는 파초를 심어 빗소리를 듣는 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아 언젠가 일부러 그 동네를 찾아가간 적이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40) 민숙영(2006.10), <내고향 삼선교>, 위의 책, 176쪽, 이태준(1994), <옆집 ‘냄새’ 업(業)>, [이태준 문학전집 제15권], 깊은 샘, 265쪽, 해이수(2006.6), <출악어기>, 앞의 책, 135쪽, 이선미(2007.5), 앞의 책, 186쪽, 김진규(2007.12), <달을 먹다>, 앞의 책, 165쪽, 임영태(2007.12), [호생관 최북], 앞의 책, 89~90쪽 등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41) 장석주(2006.11), 앞의 책, 29쪽

닥뜨리는 각종 채를 언급한다거나 원경(遠景)에서 파악될 수 있는 지붕재로서의 먹기와를 묘사한다거나 혹은 각 채의 구조적 뼈대를 이루는 서까래나 바닥 난방을 위한 구들장 등을 문학작품에 분명하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한옥이 비록 그 격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한옥을 이루는 구성요소나 구법이 중요한 특질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히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포착되는 구체적인 의장·기술요소 역시 중요한 물리적 특질이라는 점을 예증하는 것이다.

“유경은 뾰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풀 더미를 헤치고 들어가서 섬돌을 지나 마루로 올라갔다. 마루에는 떨어진 문짝이 비뚜름하게 새워져 있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얼굴에 휘감겼다. 유경은 손을 저어 거미줄을 치웠다. 방문은 떨어져 나가고 서까래가 내려앉은 집은 구들장이 놓인 한옥이었다.”⁴²⁾는 묘사나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는 정사각형 널을 이어 맞댄 청마루가 있었는데, 마루는 길이 들어 색깔이 아름다웠고 얼굴이 얼비칠 정도로 윤기가 돌았다. 둥근 대들보와 휘어진 서까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장은 또 얼마나 보기 좋았던가.”⁴³⁾ 따위의 묘사는 도시한옥이 드러내는 미적 가치나 감흥이 각 채를 이루는 구체적인 구성요소의 본연성(本然性) 혹은 진정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직접 꼽아 언급한 내용 가운데 서까래나 대들보 혹은 구들장 등과 달리 높은 곳에서나 혹은 먼 곳에서 보이는 도시한옥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이미 조선인 최초의 비행사로 경성의 하늘을 날았던 안창남이 ‘종로통과 황금정통의 시커먼 기와집을 묘사한 뒤 이들 상업지역과는 달리 아직 밀집주거지로 변하지 않은 곳은 모두 초가지붕이어서 마치 마른 무덤처럼 보인다고 했던’⁴⁴⁾ 곳이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는 종로나 을지로와 같이 시커먼 기와를 뒤집어 쓴 밀집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묘사는 시인 김양식의 글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내수동 50번지는 그 동네가 모두 먹기와 한옥마을이었다. 지금은 경희궁의 아침이란 아파트 단지가 가득히 들어서 있지만, 안채와 뒤채가 있었고,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삼 남매가 참으로 정겹게 살던 곳이다.”⁴⁵⁾

이같은 언급은 관찰자의 시선에서 볼 때 근경과 원경으로서의 특성이었다면 도시한옥의 공간적 깊이를 드러내는 문간의 구성요소들을 언급한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즉, 북촌의 도시한옥은 태생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고밀도 주거지지만 적어도 다양한 크기의 채 나눔과 마당을 통해 공간적 깊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 되었을 것 같은 한옥이 일곱 개의 장대한 대리석 계단 위에 이중 솟을 대문을 세우고 서 있었다”⁴⁶⁾거나 “대문과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우물이 있어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은 대문 밖까지 쪽 줄을 서서 우리 집 우물물을 퍼가던 동네사람들”⁴⁷⁾에 대한 기억이 현재하는 것 등이다. 또한 “낮은 담벼락에 매달린 가로등마저 뜸한, 넓은 들녘을 피해 산기슭에 자리 잡은 기와집. 길고 두꺼운 검은 돌담을 돌아가면 한눈에 명문대 가임을 알아볼 수 있는 높은 대문이 나왔다”⁴⁸⁾던지 “남자는 안쪽의 중문을 가리키며 들어가 보라고만 일러 주고는 사라졌다. 중문을 지나자 아담한 정원이 보이고 다시 몇 채의 방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⁴⁹⁾는 등의 묘사가 그것이다.

따라서 북촌의 도시한옥은 세밀한 의장·기술요소로부터 멀리서 보이는 원경으로서의 단순한 색감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 속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깊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북촌의 물리적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IV. 북촌의 물리적 정체성과 의미

1.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

지금까지 분석수단으로 상정한 40여 편의 소설과 수필 등을 통해 북촌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정체성을 도출한 결과 크게 4가지의 구성요소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은 도시한옥군이 빚어내는 집단경관과 골목, 채의 나눔과 각 채의 구성형식,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을 위한 마당과 뜰, 기술·의장 요소와 공간적 깊이로 구분된다. 각각의 내용을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집단경관과 골목으로 대표되는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정체성은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북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보행자로 하여금 다양한 이동경로의 선택성을 보장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흔히 현대 도시가 갖는 의미 없는 공간의 나열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된 주거지의 다양한 경로의 확보 등에 대한 요구는⁵⁰⁾ 적어도 현재의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로 대표되는 채 나눔과 구성형식은 북촌 도시한옥이 몇 가지의 채 구성방식에 기대

42) 서성란(2006.11), [특별한 손님], 실천문학사, 62쪽
 43) 이정립(2006.10), <사적동 그 집>, 앞의 책, 142쪽
 44) 안창남(1923), <하늘에서 본 경성과 인천>, 『개벽』, 1923년 1월호, 안창남 외 지음, 이지누 엮고 씀(2005.11), 잃어버린 풍경 1, 호미, 21쪽에서 재인용.
 45) 김양식(2006.10), <내 고향 서울>, [서울을 품은 사람들 1], 앞의 책, 161쪽

46) 전경린(2007.1), 앞의 책, 17~18쪽
 47) 민숙영(2006.10), 앞의 책, 176쪽
 48) 이선미(2007.5), 앞의 책, 185쪽
 49) 임영태(2007.12), 앞의 책, 88쪽
 50) 흔히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에 의해 제안된 semi-lattice 구조에 의한 도시의 경로 선택성 확대(A City is not a Tree)나 피터와 앨리슨 스미드슨 부부(Alison and Peter Smithson)에 의해 제안된 고층 집합주택에서의 공중가로(street-in-the-air)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들 이론에 대해서는 각각 Geoffrey Broadbent (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VNR과 Alison and Peter Smithson (2001), The Charged Void, the Monacelli Press 등을 참조.

표 1. 문화지리학적 분석에 의한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

물리적 정체성	문학작품 속의 구체적 묘사내용
① 도시한옥군이 빚어내는 집단경관과 골목·한옥 처마를 따라 굽은 골목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마를 나란히 한 고만고만한 조선기와집 · 작은 집들이 연속한 골목길 · 오밀조밀한 한옥들과 골목길 · 처마와 담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 아기자기하게 이마를 맞댄 한옥 · 길을 면하여 다닥다닥 붙어 있는 한옥 · 방향을 달리한 기와지붕
② 채의 나눔과 각 채의 구성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채, (큰, 아래)사랑채, 행랑채, 뒤채 · 안방, 건넌방, 마루 · 튼 口자형 집과 마당 · 口자 집안, 굽은 자형의 안채 · 기억자의 안채, 니은자의 사랑채 · 几자 모양의 집칸 · 사각형 모양의 당에 놓인 약국과 살림집 · ㄷ자 한옥여관
③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을 위한 마당과 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뜰과 나무로 조봇한 마당 · 처마와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 우물과 꽃밭· 작은 마당, 우물 마당, 넓은 마당 · 행랑마당, 좁은 마당 · 아담한 정원
④ 기술·의장 요소와 공간적 깊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까래와 대들보, 구들장, 청마루 · 홍예문, 솟을대문, 대문, 중문 등으로 이어지는 주거공간의 깊이 · 먹기와, 조선기와로 보이는 원경

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거나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산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은 표준평면에 의한 초고층 아파트의 일방향적 주거지 조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마당과 뜰에 의한 접지성이 유독 강조되는 것은 도시한옥이 비록 근대적 충격에 의해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대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땅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주거형식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가속화된 도시화에 따른 고밀개발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멸된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마당과 뜰에 대한 기억과 향수가 도시한옥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주된 욕구라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⁵¹⁾ 이와 함께 공간의 깊이를 지각하면서 살림집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대문, 중문 등으로 구체화 하거나 구조체의 골격이나 지지방식을 드러내는 각종 기술적, 의장적 요소를 남다르게 강조한 부분은 도시한옥이 보유한 특질이 단순한 외양의 복원이나 콘크리트 등의 대량생산재에 의한 구법이나 효율성을 강조한 전통한옥의 모사행위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51) 이는 최근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공동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자주 강조되곤 하는 생활가로(living street) 혹은 생활도시계획의 주된 내용과 그 맥이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시장적 선호의 증가,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보급, 타운하우스로 불리는 새로운 주거욕구의 증대와 중층 공동주택 시장의 활성화 등과 그 의미가 닿아 있다.

2.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에 대한 의미 해석

앞서 요약한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과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학작품 속의 언급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한옥군이 빚어내는 집단경관과 골목이라는 물리적 정체성은 다양한 이동경로의 선택성을 보장하는 골목길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집합적 풍경으로서의 경관은 도시한옥이 결코 한 두 채의 오브제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존재 속에서 의미가 명료해진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는 곧 집합성이라는 용어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또한 채의 나눔과 채들의 구성형식은 북촌 도시한옥이 기본적으로 채 나눔을 일차적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너 가지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시한옥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등의 관점에서 유의한 의미를 전하는 동시에 한옥건축의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식성이 내재된 방법이 산업화나 복원 등에 대한 가능태라는 것이다.

일상생활공간의 확장을 유인하는 마당과 뜰이라는 물리적 정체성의 구성인자는 북촌 도시한옥이 다른 곳들과는 달리 실제 생활이 영위되는 기거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북촌 도시한옥이 존재하는 방식은 당연히 뜰이나 마당을 중심에 두고 채를 그 주변에 두르는 원칙이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접지성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제화된 전통주택의 보전이나 복원 등은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한옥을 이루는 각 채는 원칙적으로 건설 당시 사용되었던 본연의 기술·의장을 중심으로 복원되거나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일각에서 도시한옥의 외양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표준적 구법과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외피에만 주목하는 보전과 복원, 현대적 구법과 재료를 통해 도시한옥을 생산하는 기술 편향적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 1>과 연계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북촌 도시한옥의 물리적 정체성과 의미의 해석 및 시사

물리적 정체성	의미 해석	시사점과 활용 방향
①	집합성	골목에 의한 경로 선택성 확보와 집합적 풍경으로서의 유기적 공간구성
②	형식성	채 나눔을 기본으로 3-4가지의(기역, 니은, 미음 등) 배치방식 준용
③	접지	성각각의 채가 마당을 두르는 공간구성 방법에 의한 접지성의 확보
④	기술·의장성	도시한옥에 범용적으로 사용된 본래의 기술·의장에 주목하는 법식활용

V. 결론 및 연구의 의의

이 논문은 서울 북촌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작품 속의 공간적 배경 일부 혹은 서사의 중요한 축으로 북촌 일대를 등장시킨 40여 편의 문학작품 속 묘사내용을 문화지리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물리적 정체성과 공간적 독자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논문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보전이나 복원 등과 같은 도시한옥에 대한 새로운 보급과 관리수단의 확보와 함께 도시한옥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보급 등 문화적 가치창출에 유용한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⁵²⁾ 아울러 기왕의 관련 연구성과가 주로 건축구법이나 형태유형학 등에 주목하고 있다면 여기에 덧붙여 문화지리학적 의미를 보탬으로써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문학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였거나 혹은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태 북촌 도시한옥이 품고 있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북촌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던 1930년대 당시의 도시한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들 도시한옥에 대한 관심이나 시선은 당시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달라졌고, 오히려 우려될 정도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배가된 관심의 집중이나 선부른 제도와 정책이 자칫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관리하거나 복원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며, 이 논문은 이런 점에서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사점과 활용방안의 일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주목하여 문화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서울 북촌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물리적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는 모두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합적 정체성이다. 서울 북촌의 도시한옥 밀집지역은 집합적 풍경으로서의 유기적 공간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집합적 대상이 되는 도시한옥의 사이사이는 좁고 굽은 골목길에 의해 거주자나 방문자들에게 경로의 선택성

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형식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촌 일대의 도시한옥은 각각이 채 나눔을 기본으로 서로 다른 채들이 기억 자, 니은 자, 디근 자, 미음 자 등의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고유한 배치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같은 방식의 지속이 북촌을 새로운 주거지로서 중요한 독본이 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셋째, 접지성을 가지는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북촌의 도시한옥을 구성하는 살림집의 각 채는 마당을 두르는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어 거주자에게 대지와와의 긴밀성을 보장하는 일상적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격을 갖춘 궁집 등과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땅을 바탕으로 채가 존재하는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박제화된 전통건축의 보전 등과 그 양상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북촌 도시한옥의 정체성은 기술과 의장 중심의 고유한 법식을 사용하고 그 특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도시한옥이 집중적으로 만들어 지던 당시의 재료와 구조, 법식 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기억이나 경험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이처럼 요약된 연구의 결론과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문화지리학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북촌 도시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재료와 구법, 법식과 의장요소의 재현에 그치고 있는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 등 다른 도시들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동력으로 식민시대와 산업화시대의 주거관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단순히 집장수집으로 의미를 격하시켰던 시선을 새롭게 보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한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각종 시범사업 등의 실천적 행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보탬 수 있다. 기왕에 남아 있는 개별적 도시한옥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거나 새롭게 한옥을 만드는 일, 혹은 도시한옥 밀집지역의 경관적 아름다움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원제도나 정책의 개발 과정에서 비록 비(非) 물리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거나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다양한 문학작품 속의 묘사나 기억의 재현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영수(2007) 기술·의장 중심의 역사경관 보전방안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 김재관·장두식(2007.1), 문학속의 서울, 생각의 나무.

52) 서울 북촌의 도시한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세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촌 일대의 문화상품은 북촌문화원 등이 제공하는 단순한 지도와 각종 음식점, 숙박업소 소개 등에 머물고 있으며, 도시한옥을 이용한 주민센터와 치과, 각종 공방 등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종 사실(facts)과 문학작품의 묘사내용 등을 지리적 매체와 연동하면 다양한 형태의 문화지도나 e-book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상품의 개발과 보급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건축가 개인이나 단체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답사 역시 물리적이거나 건축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폭넓은 참가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가나 시인 혹은 수필가 등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답사기획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예시한 것이다.

3. 김정동(2005.3), 문학 속 우리도시 기행, 옛오늘.
4. 김태준 편저(2005.6), 문학지리 · 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
5. 김태준(2006), 한국의 여행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 김현주(2005.9),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주).
7. 김훈·박래부(2007.12), 김훈·박래부의 문학기행, 따뜻한손
8.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2005.11),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
씨 걸던 길까지, 창비.
9. 안창남 외 지음, 이지누 엮고 씀(2005.11), 잃어버린 풍경
1-서울에서 한라까지, 호미.
10. 윤소영 외(2007),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어문학사.
11. 이동하(1999.8), 한국문학 속의 도시와 이데올로기, 태학사.
12. 송인호(1990), 도시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3. 장석주(2006.11),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14. 장석주(2007.12),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주)사회평론.
15. 河村吉宏 · 中村 勝 · 三浦隆夫(2007.4), 京都文學散策, 京
都新聞出版センター
16. Alison and Peter Smithson (2001), The Charged Void, the
Monacelli Press.
17. Geoffrey Broadbent (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VNR.
18. Matthew Frederick (2007), 101 Things I Learned in Archi-
tecture School, MIT Press.

(接受: 2008. 3. 3)